

보도 일시	2022. 8. 4.(목) 16:00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8. 4.(목) 16:00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유원상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박주용 (044-201-2260)

##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사과 공급 문제없다

- 올해 기상 조건이 좋고 병해충도 적어, 홍로 생육상황 양호 -

### 주요 내용

- 올해 추석 성수품 사과(홍로)는 명절 수요량 대비 수확·출하 가능한 물량은 충분하여 공급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생육 동향·작황 파악과 원활한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급 대책을 추석 전까지 중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인 사과(홍로) 주산지인 전라북도 장수군의 사과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홍로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전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평년과 큰 차이가 없고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사과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이 예상된다. 특히 추석에 쓰이는 홍로의 과실 크기는 현재 전년보다 6%, 평년에 비해 3% 내외 커 생육상황은 양호한 수준이다.

- \* '22년 재배면적(통계청): 34,644ha(전년 대비 0.8%↑, 평년 대비 4.2%↑)
- \* '22년 생산량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515천 톤(전년과 비슷, 평년 대비 1.1%↑)
- \* 홍로 크기(사과연구소, 7.30일 기준): 72~79mm(전년 대비 5.7%↑, 평년 대비 2.5%↑)

올해 사과의 추석 수요량은 60천 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추석 수요량/수확 가능 물량: 60천 톤/70~75천 톤(수요량 대비 17~25%↑)

홍로의 경우 경남 거창, 전북 장수 등 일부 주산지에서는 출하를 시작한 증가도 있으며, 8월 10일경 수확 물량이 늘어나고 8월 20일을 전후해 출하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로 주산지인 장수군 조합공동사업법인 박평열 대표는 “추석 성수품인 홍로의 경우 올해 저온 피해도 없고 기상도 양호해 생육상황이 매우 좋고, 현재 과일 크기도 예년보다 더 커 추석 전 수확·출하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석을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하여 추석 성수기(3주, 8.22.~9.8.) 동안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소비 쿠폰을 활용하여 대형마트 할인판매,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 등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하여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사과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재해(태풍, 폭염 등)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